

# “가자! WBC 우승·KIA V11”

호랑이 삼총사 서재응·윤석민·이용규 연봉계약 마무리... 16일 미국으로



서재응



윤석민



이용규

KIA의 국가대표 3인방이 연봉계약을 마무리 짓고 WBC 체제에 돌입한다.

13일 KIA 투수 서재응이 3억5000만원에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지난 시즌 2억9000만원을 받았던 서재응이 6000만원(20.7%) 인상된 금액에 협상을 끝내면서 KIA의 WBC 3인방의 계약이 마무리됐다.

앞서 투수 윤석민이 지난 시즌과 같은 3억 8000만원, 지난 11일에는 이용규가 3억원에서 4000만원(13.3%)인상된 3억4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용규와 서재응이 구단과의 입장차를 보이며 난항이 예고됐지만 WBC와 V11가 이들의 발길을 재촉했다.

이용규는 “금액이 큰 문제는 아니었다.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만큼 다른 팀 선수들의 계약 상황을 고려하느라 계약이 조금 늦어졌다. 지난해 스프링 캠프까지 계약이 늦어져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감독님께서도 차분하게 캠프를 치르기를 바라셨고, 대회와 시즌 준비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남아있던 서재응까지 한발 물러서면서 국가대표 3인방의 WBC 준비에 속도가 붙는

서재응 3억5000 “10승이 인생 목표”

윤석민 3억8000 “우승팀 에이스로”

이용규 3억4000 “WBC·시즌에 집중”

다. 서재응과 윤석민은 재활조와 함께 9일 미국 캠프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재계약과 대표팀 행사 일정으로 캠프 시작이 늦어졌다.

이들은 15일 WBC 대표팀 출성식 및 유니폼 발표회에 참석한 뒤 16일 미국 캠프에 합류,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KIA V11의 중심인 이들은 대표팀에서도 4장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선수다.

변함없이 태극마크를 단 윤석민과 이용규는 투·타의 중심이다. 대표팀 마운드를 책임져왔던 류현진(LA 다저스)과 김광현(SK)이 빠지면서 윤석민이 마운드 중심에 서고, 이용규는 테일러 세터로 공격의 전면에 선다. 또 2012시즌 도루왕·득점왕에 어울리는 기동력도 이용규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다.

서재응은 두 괴물 좌완이 빠진 대표팀의 만행으로 어깨가 무겁다. 영공재현을 위해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하다. 서재응은 1회 대회에서 일본을 꺾은 뒤 에인절스 스타디움 마운드 위에 태극기를 꽂으며 4강 세레머니를 펼친 주인공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서재응은 녹슬지 않은 칼날 제구로 다시 또 WBC 무대를 밟게 됐다.

서재응은 “태극마크는 영광이다. 만행으로 특별히 뭔가를 하기보다는 경합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몸관리를 알려주고 심리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BC를 통해 2013시즌을 여는 서재응은 10승이라는 ‘인생 목표’를 위한 도전에도 나선다.

미국 진출을 노리는 윤석민에게도 WBC는 기회이자 시험무대이기도 하다.

윤석민은 “지난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목표를 높게 잡았다. 먼저 WBC에서 순조롭게 스타트를 끊고 싶다. 대회를 위해 일찍 몸을 풀어올리고 있는데 기분 좋은 기억을 갖고, 그 분위기를 이어 올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만들겠다. 우승팀 에이스로 2014 시즌을 계획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우승의 기쁨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배드민턴 2013 빅터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결승에서 승리한 이용대가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이용대-고성현 조는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인 마티아스 보에-카르스텐 모겐센(덴마크)을 2-1로 꺾었다.

/연합뉴스

## 전북 10구단 무산... 수원 KT 사실상 확정

### 동구장·200억 기금에 밀려

전북의 10구단 창단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11일 2013년 제1차 이사회가 끝난 뒤 “10구단 창단 평가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신규회원(10구단) 가입에 대한 심의를 했다. 22인의 외부 평가위원들의 채점 총점 결과 전북-부영보다 수원-KT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의 내용을 조만간 개최되는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KBO의 공식 발표가 이뤄지면서 전북-부영의 10구단 창단은 사실상 무산됐다.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수원-

KT의 창단이 최종 결정된다.

“지역 안배와 신속구장 건립”을 강조하며 막판 역전을 노렸던 전북은 “야구발전기금 항목에서 밀렸다”며 패배를 아쉬워했다.

지난해 12월13일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선언한 전북과 부영은 활발한 유치전을 펼치며 한발 먼저 출발한 수원-KT를 추격했다.

LG·두산·SK·넥센 등 수도권에 4개 구단이 밀집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을 강조했고, 전주에 1100억원을 들여 야구 전용 구장을 건립하겠다고 유치전에 속도를 냈다.

지역의 야구열기를 전하기 위해 7일 KBO에 회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도민 102만명의 유치 지지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중근 회장을 중심으로 부영의 물량공세도 이뤄졌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군산상고와 전주고를 찾아 각각 1억원의 야구발전기금을 전달했다. KBO에 주는 야구발전기금 외에도 전북 아마야구 발전을 위해 100억원을 내놓겠다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수원-KT가 야구발전기금으로 200억원을 써넣으며 80억원을 적은 전북-부영을 압도했다. 경기도내 독립리그 운영과 5000억원을 들인 동구장 건립 계획 등 지속적인 구단 운영 능력과 야구 산업 발전 그리고 시장성 면에서 수원-KT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WBC 우승 포상금 10억

올해 3월 열리는 ‘제3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대표팀이 첫 우승을 달성하면 10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어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손질했다.

그동안 포상금을 다른 제13조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포상금을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다.

KBO는 WBC 우승시 포상금 10억원, 준우승시 7억원, 4강 진출시 3억원을 주기로 했다. 이는 WBC 조직위에서 성적에 따라 주는 상금과는 별도로, KBO는 상금의 50%를 선수단에 준다. /연합뉴스

## 이용대·고성현 우승

빅터코리아오픈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꺾어

이용대(삼성전기)-고성현(김천시청)이 2013 빅터코리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총상금 100만달러)에서 세계랭킹 1위를 물리치고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용대-고성현은 13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마티아스 보에-카르스텐 모겐센(덴마크)을 2-1(19-21, 21-13, 21-10)로 꺾고 우승상금 7만9000달러를 획득했다.

이용대-고성현은 지난달 화순에서 열린 빅터 코리아그랑프리골드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부터 3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4개 대회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결승에서 패배를 안긴 보에-모겐센에게 설욕전도 성공했다.

런던 올림픽까지 세계랭킹 1위와 호흡을 맞췄던 이용대는 2010, 2011년에 이어 2년만에 우승을 탈환했다.

장신을 이용한 보에-모겐센의 강력한 공격에 고전하며 1세트를 내준 이용대-고성현은 체력의 우위를 앞세워 내리 두 세트를 따내며 1시간 5분만에 짜릿한 역전승을 일궜다.

여자복식에서는 런던올림픽 ‘의 패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조로 꼽히는 왕사울리-위양 조가 마진-탕진화(이상 중국)를 2-0(21-17, 21-13)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서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서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서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5-6인실), 입장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톨,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겨울여행의 메카 강원도로 떠나요

1월 출발일 1월달 매주 토요일/일요일 5,6,12,13,19,20,26,27일

평창 휘닉스파크스키 ₩95,000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에서 즐기는 스키 포함시향-왕복28인승버스, 리프트이용권, 렌탈50%할인권

백두대간 선지령 풍차길 눈꽃트래킹 ₩45,000원  
대관령기상대 - 양떼목장 - 통신중개소 - 동해바다조망 - 정상(1,157m) - 하산 4-5시간 트래킹

강릉 안목항 커피거리 + 커피박물관 ₩60,000원  
대한민국 최초 커피박물관 관람 및 체험관광 안목항 커피거리 자유시간  
협찬: 사평관방부어